[the300]  
  
  
  
  
  
  
  
[양주=뉴시스] 전신 기자 =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'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'에 참석하고 있다. (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) 2024.05.19. photo1006@newsis.com /사진=전신김건희 여사가 169일 만에 대중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. 김 여사는 특검법(특별검사법안) 등 논란을 마주하면서 지난해 12월2일 자승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분향소 방문 이후 대중 행보를 멈춘 바 있다.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오전 경기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'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'에 참석했다. 이날 행사는 지난달 16일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, 정광불, 석가불, 나옹선사, 지공선사(3여래 2조사)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(還至本處·본래의 자리로 돌아감)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.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참석한 이유에 대해 "그간 조계종은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을 확인한 이후 20여 년간 숙원이 된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사리이운 기념 행사에 대통령과 김 여사가 꼭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"며 "이에 대통령은 불교계의 간곡한 요청과 감사에 화답하기 위해 김 여사와 함께 오늘 행사에 참석해 국가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는 사리의 환지본처를 축하했다"고 설명했다.  
  
  
  
  
  
  
  
[양주=뉴시스] 전신 기자 =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'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'에서 대화하고 있다. (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) 2024.05.19. photo1006@newsis.com /사진=전신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진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, 호산 봉선사 주지 스님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.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"사리가 환지본처돼 매우 뿌듯하고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"며 "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"고 말했다.